

## 무기와 보급 전술로 본 세계사



전장을 지배한..

도현신 지음

역사 이래 인간은 다른 종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을 취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이며 무기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강한 민족이 살아남고, 다른 민족을 흡수하고, 국가를 세웠다.

한편 보급력이 전세를 가름하기도 했다.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을뿐더러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는 물질적인 보상이 중요했다. 전쟁에서 때론 활보다 빵이 더 강한 무기였던 것이다.

무기와 보급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써 줄 때와 날줄 삼아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한 교양서가 출간됐다. '원군과 이순신', '지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작가 도현신이 펴낸 '전장을 지배한 무기전 전술'을 뒤바꾼 '무기와 보급'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의 시선은 돌도끼, 탱크, 생화학무기, 나폴레옹 전쟁, 소련과 미국의 랜드리스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기원전 1만2000~8000년경 고대의 핵무기가 할 수 있는 활이 등장했다. 활은 그때까지 인류가 사용했던 돌도끼나 돌칼 등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신무기였다. 적이 반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마음 놓고 적을 공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기원전 17세기 아리안족이 만든 전차는 최고의 고속 기동무기이자, 자동차에 비견할 만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서아시아의 히크소스족은 아리안족에게 기술을 배워 전차 위에서 활을 쏘는 공격으로 이집트를 정복했다.

최초의 총은 1290년 중국에서 개발된 화총이었다. 15세기부터 서양의 화약 무기 제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대 총기의 원류가 된 아리버스와 머스킷은 모두 서양에서 발명됐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핵폭탄은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소련은 한 번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체됐다.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결국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나 강한 무기와 옹성한 군사가 있어도 보급체계가 무너지면 패할 수밖에 없다. 율리아누스 황제의 페르시아 원정, 수나라의 10만 대군, 나폴레옹 전쟁 등 역사적으로 알려진 전쟁이 이를 증명한다. 보급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멸하거나 항복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케도니아의 에우메네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총성보다 물질적인 보상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에게 보급부대를 빼앗기면서 다 이긴 전투를 패했다. 이와 달리 보급 작전의 성공으로 승리한 경우도 있다. 2차대전 당시 미국은 나치를 막기 위해 소련에 군수 물자와 식량을 무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랜드리스 작전'을 실행했고, 이로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시대의 창·1만5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색(色)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색깔 효과

한스 페터 투른 지음



현대미술가인 고트하르트는 "색의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색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를 인식하는 매개체다.

얼마 전 박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의상을 착용했다. 공식환영식장에서 허잡의 일종인 루사리를 썼고 분홍색 재킷을 입은 채였다. 전날 이란에 도착했을 때는 흰색 루사리에 연두색 재킷 차림이었다.

박 대통령의 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란 국기는 조류색과 흰색, 빨간색의 3가지 색깔을 담고 있다. 아마도 박 대통령의 의상은 상대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구나 아집부터 접지리에 들 때까지 색의 흥수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사물과 시설은 저마다의 색을 지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마주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다.

오늘날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많은 색



화려한 색상으로 구성된 덴마크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센의 의자는 다양한 색깔의 효과를 보여준다. <열대림 제공>

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고정된 색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색의 선택과 활용은 그만큼 중요해졌다.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은 언제나 색깔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채로운 색의 메시지와 사회학적 의미를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슈셀도르프 예술아카데미 사회학 교수인 한스 페터 투른의 '색깔 효과'는 색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는 색을 사회적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가 '신분색'과 '단체색'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문호 괴테와 스포츠 분야를 예로 든다.

뒤늦게 귀족 대열에 합류한 괴테는 노후에 자신의 신분에 맞는 밝은색 옷을 입었다. 출세한 작가답게 괴테는 하얀색 식탁보와 냅킨을 사용했고 하얀 빵을 먹었다. 여러 그림에 등장하는 괴테의 모습은 이를 방증한다. 반면 그의 비서는 신분에 맞게 갈색이나 녹색 재킷 차림이었다. '색채론'의 저자이기도 한 괴테는 백인을 "아름다운 인간 모습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신분색으로는, 최고 특권을 누린 흰색과 왕족의 색으로 불린 파랑색, 루이의 색으로 간주된 노란색이 있다. 루이15세의 애첩이었던 폰파두르 부인은 옷이나 실내장식에 파란색을 이용했고, 나치는 유대인에게 '노란 별' 표식을

달게 했다.

개인이 색을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처럼, 집단도 마찬가지다. 집단색은 오래전부터 공동체 생활의 구성에 기여해왔다. 정당들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을 '우리 색'으로 정한 것은 그 때문이다. 단체색은 소속감을 강화하고 구성원 외의 사람들에게 경계를 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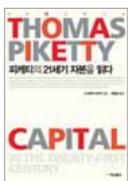
스포츠 분야에도 단체색은 중요하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모든 단체 경기에는 동일한 유니폼을 입는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과 동료를 구분하기 어렵다. 현대사회에서는 감성 마케팅 '컬러 마케팅'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색깔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끊임없이 확장되는 색의 팔레트에서 적절한 색을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문화적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색은 소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메이크업, 컬러풀한 셔츠, 화려한 옷감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머리카락 색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것도 나이, 스타일, 피부색에 맞아야 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고백했듯, 이런 생각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 있지만 말이다."

<열대림·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일반인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피케티 이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읽다

니시무라 가스미 지음

우리 시대의 계급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말 가운데 '흙수저 계급론'이 있다.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로,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은 흙수저로 분류된다.

불과 20~30년 전에는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이들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흙수저가 금수저로 상향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만큼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었다

는 방증이다.

2014년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기존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뒤집는가 하면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으로 글로벌 자본세 같은 과감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시바우라공업대학원 니시무라 가스미가 펴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읽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피케티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책이다.

저자는 피케티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을 경제학 수식과 전문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간명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책은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본소득 점유율이 높아진다'와 같은 부제와 그 하위 항모들로 구성됐다. <재출판·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특정 공간 배회하는 점 같은 존재들의 이야기



머리부터 천천히

박솔외 지음

문지문학상과 김승옥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솔외가 네 번째 장편 '머리부터 천천히'를 펴냈다. 그동안 희망 없는 세대와 미래 없는 시대를 사유하는 작품들의 특유의 문체로 형상화했던 박솔외의 장기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발밑을 디딘 공간이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는 점 같은 존재들이다. 소설은 총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01의 화자는 '나'이고, 02부터 04는 각각 번갈아 우경과 병준의 이야기다. 05, 06은 병준, 07은 우경, 08은 다시 병준이 화자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먼저 '나'의 이야기가 있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 깨어나는 아버지는 속리산에서 빨래하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꼭 소설로 쓰라고 말한다. '나'는 이번이 실패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 반면 '병준'은 큰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병실 뒤편 벽에 붙어 있는 큰 세계지도 위에는 환자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5년 전 병준과 헤어졌던 옛 연인 '우경'은 중환자실을 드나들며 보호자 역할을 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상을 바꾼 역사적 인물들의 모험심·도전정신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

마거릿 맥밀런 지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국내에서도 '역사사용설명서'라는 책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옥스퍼드대 세계사 교수 마거릿 맥밀런이 펴낸 '개인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가'는 개인적 특성 중에서 리더십, 오만, 모험심, 호기심, 관찰 등이 어떻게 역사를 변화시켜왔는지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역사의 저변에 깔린 힘과 움직임

의 흐름 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개인적 특성이 커다란 사건의 굽이굽이에서,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휘되어 지금의 역사로 나아가게 됐는지 짚어본다.

소개되는 인물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 있는 상황 인식은 물론 집안 배경, 부모의 특성이나 성장 과정, 학교생활, 성공과 좌절, 인간관계, 개인적 약점과 장점 등을 시시콜콜하면서도 드러마타하게 소개하고 있어 소설처럼 흥미로우면서도 역사적 교훈을 뽐낼 수 있다.

<산책림·1만8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p> <p>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72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p> <p>대기업 간부 36~67세</p> <p>회사원, 자영업 33~61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b>여</b></p> <p>VIP 희망 여성 32~45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1세</p> <p>공무원, 교사 32~54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0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이문명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за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면

IPALGI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